

# 광양시, 배알도 체류형관광 & 도선국사문화관광벨트 청사진

###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한자리서 연이어 개최 “유의미한 의견들 최종 단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광양시가 지난 27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조성 기본계획과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한자리서 연이어 개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관계부서장, 지역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조성’ 사업은 배알도에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모티프로 미디어아트를 연출해 체류형 야간관광 거점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원에 ‘동주의 별빛정원’을 테마로 상상의 폭포, 별 숲, 시인의 얼굴 등 차별화된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해 섬진강 관광시대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부로 진행된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백운산권역에 산재돼 있는 유·무형 도선국사 특화소재를 연계한 힐링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생태관광을 구축하고 섬진강, 구봉산권역과 연결해 관광벨트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운산권역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발굴된 15개 사업은 △글로벌 풍수마을, 동백 포레

스트 가든 등 5개 하드웨어, △특화형 야간관광 콘텐츠 구축, 도선 인물자유향화 및 성지화 등 4개 소프트웨어, △광양백운열차, 탄소제로 스마트모빌리티 등 6개 연계 콘텐츠 등이 다. 시는 자문위원 및 전문가, 주요 기관단체, 관계부서 등 다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과업수행을 오는 9월 중에 마무리하고, 전라남도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이라면서 “시도 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광양관광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산권역과 섬진강권역은 광양읍 및 구봉산권역과 함께 남해안남중권의 핵심 관광거점”이라면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최종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여수시, 국가산단 내 1조2400억 규모 생산시설 투자협약

㈜한화 글로벌부문·GS바이오(주)·1200여 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시가 28일 (주)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주)와 국가산단 내 약 1조 2400억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웨스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주)한화 글로벌부문 양기원 대표, GS바이오(주) 김수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 따르면 (주)한화 글로벌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산단 내 질산공장 건설 및 관련사업 확장 등 1조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구상 중이다. 연간 40만 톤의 질산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내수 및 해외수출 등을 확대해 나가며,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및 친환경 반도체 소재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국가산단 내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를 운영 중인 GS바이오(주)는 국제 환경규제와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 흐름을 고려해 오는 2024년까지 390억 원 규모의 바이오디젤 플랜트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내 약 1조 2400억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로 1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한화 글로벌부문 양기원 대표는 “북미지역에서 청정 암모니아 설비를 구축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질산을 활용해 여수 중심의 바이오/반도체소재 및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수소/CCS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고흥군,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준비 본격화

### 도양읍 소록도 인근 해역에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고흥군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소득어종인 참문어의 자원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양읍 소록도 인근 해역에 참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고급 어종인 참문어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 연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군은 성공적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남본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

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도양읍 소록도 등 인근 해역의 수온과 수심, 지질 등 모든 환경이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중 5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한 적지 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 획득



2023년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최종심사 2023. 6. 22.(목) ~ 23.(금) 14:00~18:00 / 순천시청 대회의실

순천시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이하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인증 받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차 국내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2일과 23일 ISCCC 심사위원인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조준필 센터장이 심사를 주재해 2차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그 동안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안정증진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